권능의 위로자를 대망하라
(이사야 40:1-11)

다락방모임 나눔지 25-31

2025년 12월 7일 주간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본문 읽기	**이사야 40:1-11**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이후에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오신다!: 이스라엘과 광야를 향해

본문은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소집하여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전령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내 백성'이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로암미, 호 1:9)"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암미)'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 쓰라린 결과를 맛보고 난 후에야, 다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신적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하여' 그들의 노역이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노역(차바)'은 그들이 치른 죄의 대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히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당한 모든 수모와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고, 고난의 시대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마치 긴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는 소식과 같은 기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령이 보내진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3절). 왕이신 하나님이 포로 된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통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낮아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높은 자들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4절). 그래서 버림받고 소망 없던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5절).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고, 수치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광야를 통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과 시련의 장소인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아무리 메마르고 거칠어 보여도, 그곳은 왕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모의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과 위로의 광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권능의 위로자를 대망하라!: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시는 또 다른 곳은 바벨론입니다.(6-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할 때, 풀과 꽃은 지금 잘나가는 세계 최강국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뒷면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에 피어 난 화려한 꽃처럼 보일지라도 바벨론 역시 여호와의 입김에 곧 시들 것입니다. 어떤 세상 권력과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꽃처럼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세상 영광과 권력에서 위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위로를 구해야 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8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하고 쇠퇴해도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폐허 상태의 예루살렘에 전령을 보냅니다. 9절은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과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10절).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열방을 향해 심판을 행하시는 강한 용사이면서 동시에 따뜻하고, 긍휼이 넘치는 목자가 되십니다(11절).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십니다. 권능과 위엄의 왕이자 긍휼이 풍성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위로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사역을 통해 권능의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위로자로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권능의 위로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권능의 위로자인 주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조건에서 오지 않고, 인격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권능의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전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2절)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 하나님께서 광야에 전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3-5절)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전령을 보내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6-8절)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4.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위로자이십니까?(10-11절)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 주기도문